
 ◆ 政府施策 ◆

重電機器기술개발 5,970억원 支援

—通産部, 2001년까지…輸出産業化 추진—

통상산업부는 중전기산업의 기술선진화를 위해 오는 2001년까지 순수 기술개발에 5,150억원, 산업인프라 구축에 820억원 등 모두 5,97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중전기기의 수출산업화를 위해 국가간 또는 시험기관간 상호시험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수출유망품목을 적극 발굴하는 한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朴在潤 통산부장관은 중전기산업을 주제로 열린 제24회 「新 산업발전 民官 협력회의」에 참석, 중전기산업을 2천년대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지원시책을 펴나가겠다고 밝혔다.

통산부는 이를 위해 2001년까지 변압기·전동기·전력용반도체·차단기·배전제어장치 등 중전기 핵심기술개발과 실용화에 1,600억원을 지원하고 가스개폐기·조정밀AC모터·고주파정류기·전동기속도제어장치 등 우선 국산화 대상품목 및 소재개발은 자본재산업 육성정책과 연계해 1,2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또 오는 2003년까지 전기기 성능평가사업 기반구축을 위한 노후 측정기기 설비교체사업에 188억원을, 500MVA 및 1000MVA 단락 및 초고압시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해 35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인력양성사업을 위해 '99년까지 60억원을, 초전도분야에 대한 응용기술개발공동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2001년까지 65억원을, 중전기기의 규격화 및 표준화에 내년까지 8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향후 성장유망산업인 초소형정밀기계산업에 기술공동연구기반 조성을 위해 2001년까지 65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통산부는 기술개발 지원과 함께 중전기산업의 수출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생산전문화를 유

도하고 배전제어장치·전동기·개폐기·전기로·변압기 등 세계적으로 수요가 많고 각국별 수입이 많은 품목을 우선 개발·생산토록 지원키로 했다.

또 국가간 상호인증제도 도입으로 시험검사업무와 국제화를 촉진시켜 우리 제품의 수출애로사항 해결과 적기납품 및 가격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과거 단순수주에서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해 우리 제품의 홍보와 이미지 개선을 지원키로 했다.

한편 관련업계는 이날 회의에서 성장기반의 조기구축과 신규개발품의 보급확대 및 수출산업화 촉진이 수요를 진작시켜 관련산업이 크게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중전기기의 수출확대를 위한 국가간 또는 시험기관간 상호시험검사인증제도 도입등을 적극 요청했다.

내년 할당·調整관세 대상 크게 늘어 — 財經院, 할당관세87개, 조정관세 44品目 발표 —

내년 상반기중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과 내년 한햇동안 조정관세 부과대상 품목이 확정됐다. 재경원이 발표한 '97년 탄력관세 운용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중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대상품목으로 원피, 동설, 알루미늄설, 천연인산칼슘, 염화칼슘, 2-푸르알데히드, SF가스, 전자제어식자동장치, 전구용 유리벌브, 베어링강, 전극, 우지, 채종박, 토마토페이스트, 인조커런덤, 알루미늄의 선, 이염화에칠렌, 카젤인산염, 디젤엔진 등 19개 품목들이 새로 추가됐다.

재경원은 이같은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들의 신규 지정으로 이들 제품을 수입하는 기업들은 내년 상반기중 1,932억원에 달하는 관세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재경원이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 관세를 무세화하기로 한 망간광, 동광, 알루미늄광, 아연광, 연광, 크롬광, 몰리브덴광, 지르코늄광, 양모, 고철등의 10개 품목이 내년 상반기중 할당관세 적용대상에 추가된다.